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13~2015.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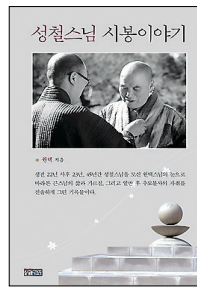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헤인	수오서재	6	법신상행각-행복해지고싶다면공부를하라	법륜	나무의마을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개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7	능엄경 대의풀이	남희관/송천문	마하연
3	안사유리광찰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법공양	8	관찰어는나내생전스님이전하는혜명의 토대	성철스님	담앤북스
4	설전(법정이문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9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5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윤/정원규	불광출판사	10	호흡이주는선물	레리첸버그의 나무를심는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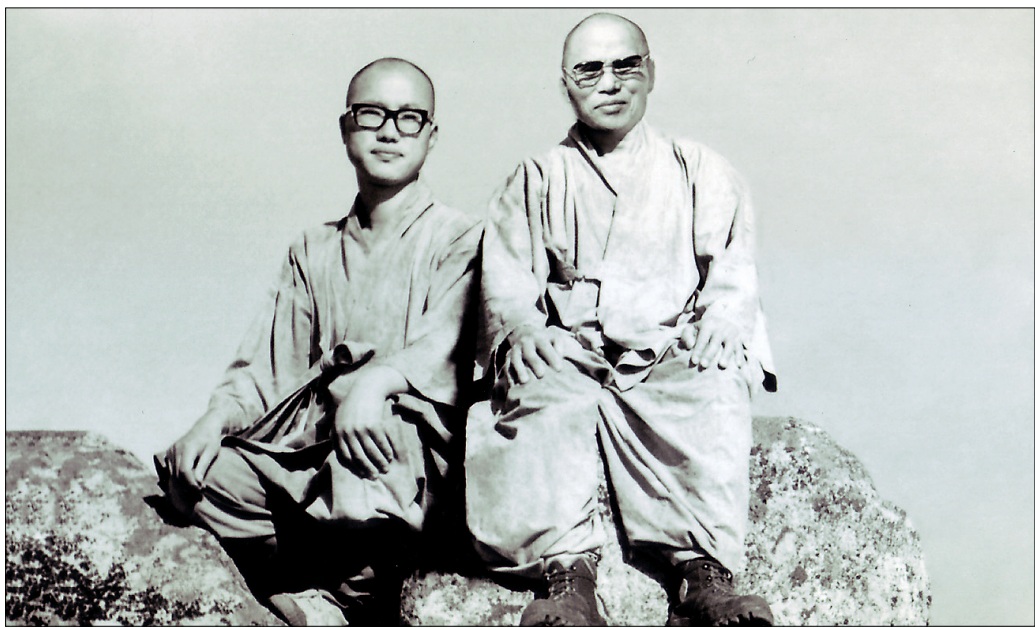
“시봉은 계속 중... 사리탑 건립, 추모사업, 책 출간 등”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택 지음 | 장경각 펴냄 | 1만 6천원



1971년, 원택 스님은 친구 따라 가야산 백련암을 찾았다가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1912~1993)을 처음 만났다. 1만 배를 한 뒤 얻은 화두가 바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不欺自心)’였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정직해야 하며 자신과의 약속만큼은 꼭 지키며 충실하라는 일침이었다.



해인사 인근 남산 매화봉에서 찍은 성철 스님(사진 오른쪽)과 원택 스님 모습.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 개정증보판 발간 200쪽 분량 '시봉이야기 그 후' 더해져 시봉하면서 느낀 생생한 경험담 소개 백련암 생활 등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도

생각을 바꾸놓았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격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성철 스님은 투박한 듯하면서도 총철살인과 명쾌함의 소유자였다. ‘가야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단도 직입적 언행은 속세를 초월해 수행자의 길을 오롯이 걸던 성철 스님이었기에 페도나마처럼 후련하게 느껴진다.

원택 스님이 출가를 결심할 때의 일화도 그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자신을 찾아온 원택 스님에게 성철 스님은 직설법으로 묻는다. “니 중 안 될래? 고만 중 되라.” 그리고 몇날 며칠 고된 끝에 출가를 결심한 원택 스님에게 엄명을 내린다. “내일부터 1주일 동안 매일 삼천 배 기도 하거라 이.”

책 속에는 성철 스님과 원택 스님의 첫 만남과 출가, 돈오돈수 논쟁, 치열한 구도정신 등 진면목을 볼 수 있다.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치열한 구도열정에는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항상 언제 원어도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번엔 새로 나온 최종판에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들어 있을까? 200쪽 분량의 ‘시봉이야기 그 후’가 더해졌다. 성철 스님 일상사와 해인사 백련암 생활,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을 시봉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실감 나게 담겨 있다.

그림자 시봉을 하며 불교계의 ‘효자 스님’으로 알려진 원택 스님은 1972년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행자 시절 꾸중도 많이 듣고 뺨까지 맞는 등 혹독한 생활을 했지만 은사 스님의 향훈과 가르침을 한번도 거스르지 않고 수십년간 성철 스님 곁을 지켰다. 그런 원택 스님의 눈으로 바라본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뉘뉘 담겨 있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원택 스님은 “큰스님께 잘한 일-생전 하나, 열반 후 셋”으로 선양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잘한 일로는 <성철 스님 법어집>과 <선림 고경총서> 출간을 꼽고 있습니다. 법어집은 성철 스님이 출간 후 부처님께 바쳤다고 자랑한 <선문경조>와 <본지풍광>을 비롯해 <백일법문> 등 모두 11권의 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서는 선(禪)의 핵심을 담은 경전과 어록을 번역 출판한 37권의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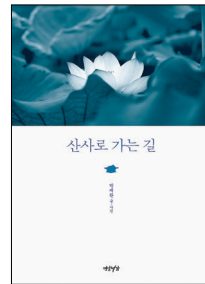
이어 “열반 후 잘한 일로는 ‘칠일월야 8만4천 배 추모 참회법회’와 ‘사리탑 건립’,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 <영원에서 영원으로> <설전> 등의 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과 열반 20주가 추모사업, 김의사에 들어선 ‘성철스님기념관 건립’, ‘성철 스님 이야기’ 음반 출시, <명추회> 발간 등이라고 생각합니다.”고 고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주필 기자 kimji4217@hyunbul.com

통찰의 깊은 울림... 앵글 속 너머 풍경 글로

산사로 가는길

박재완 글 사진 | 연암서가 펴냄 | 1만 5천원



동료로 10여년을 함께 신문사서 일했다. 사진이 본업인 저자가 어느날인가 불쑥 수필가로 등단했다고 자신의 기고가 실린 잡지를 건넸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글을 읽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앵글속 너머로 본 풍경이 그에게 글을 쓰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머리말서 “산사에서 아침을 맞을 때 산세 한 마리가 우주를 깨우고 있었고, 거대한 우주는 나비 한 마리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가 거대한 문명의 모든 결핵을 멈추게 했고, 빛의 속도로 흐르던 시간은 눈부신 설경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는 우리가 있었다. 때론 뒤늦은 생각과 빛나고 마음을 안고, 기어이 겨울을 따라나선 갈대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나의 글은 풍경에서 왔다.”고 고백한다.

책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과 잘 버무려진 글들이 사유의 여운을 주는 ‘사찰 풍경 속 이야기’ (제 1부), 붓가는 대로 자신의 신변 속 감상을 산문으로 써내려간 ‘산사로 가는길’ (제 2부), 사진기자로 그동안 전곡 산사를 누비며 기행을 적은 ‘절로 향하는 마음’ (제 3부), 마지막 문학과 영화의 무대가 된 사찰들을 소개한 ‘절 속의 문화읽기’ (제 4부) 순이다.

특히 ‘절 속의 문화읽기’ 편에서는 기지 넘치는 제목들이 간간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가령 2001년 개봉해 히트한 영화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인 감해 은하사 편에서는 ‘간달들의 템플 스테이, 형님 여기는 절입니다’로 소개했다. 신경숙의 단편소설 <부석사>에 등장하는 영주 부

석사 편에서는 ‘아무나 그곳에 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할만큼 신경숙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애정을 표현했다.

저자는 사찰을 다니며 맛 본 다양한 경험과 그곳서 만난 한 선적인 사진에 특유의 맑고 명징한 언어를 가미해 이 책을 완성했다.

김중환 문학평론가는 “자기 내면의 흐름을 용서치 않고 날마다 따지는 시선은 가장 박재완적인 시선이다. 자기 엄격성은 작가에게, 특히나 수필작가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는 이 산행의 경험을 역경을 뚫고 어떤 목표물을 쫓아온 승리의 기록보다는 자기의 비굴을 어쩔 수 없이 목격하듯 자기 격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며 “이 작가에게 이런 오기는 왜 생기는 걸까? 극한의 상황에서 나의 허약함을 발견했다면—어디 이게 나만이 갖는 허약함이겠는가. 인

맑은 언어로 기록된 구도의 여정기 다양한 풍광ضمن한 禪 사진 돋보여

간이란 종이 갖는 허약함일 것이다—어떤 경우에도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고 그렇다면 진전된 시선 아닌가. 그날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격해서 셔터를 눌렀던 것은 그날의 태양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태양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수필가인 맹난자 선생도 “박재완의 수필은 맑은 언어로 기록된 구도의 여정기(旅程記)라 할 수 있다. 사는 게 힘들어도 나의 ‘자리’는 변함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동심(眞如)의 점검과 어찌 다 찾아온 근심으로 공부하면서 손살같은 시간 살다 갔으면 한다는 압축된 그의 언어는 독자로 하여금 많은 부분을 보완하면서 읽게 한다. 그것들은 곧 나의 문제로 환원(還元)되고... 그의 글에는 이런 힘이 있다. 통찰의 깊은 울림이 있다.”고 칭찬했다.

김주필 기자



박재완 작, '아름다운 날'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해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중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암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1편 처방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냄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앓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몸 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격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출판사 www.msja.co.kr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 ② 의로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범민스님의 산사 음향회 CD 발매

범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컨벤션 센터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향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업보·님이오는 소리·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향회 CD 목차

- ① 목탁새
- ② 계명암 오솔길
- ③ 백일기도
- ④ 소원
- ⑤ 업보
- ⑥ 상념
- ⑦ 사랑은 주는거야
- ⑧님이 오는 소리
- ⑨ 목탁새 (slow)
-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 다산불원
051-231-6455 / 010-9049-0016